

미리가본 西紀 2000年

編輯室

「오전 생활권」時代 열려

全國이 「1일생활권」에서 「오전 생활권」으로 바꿨다.

오전생활권이란 아침에 일찍 출근한 사람이 釜山에서 걸려온 電話를 받고 즉시 역으로 달려가 열차를 이용해 釜山까지 가서 1時間 會議를 마친후 서울에 다시 돌아와도 正午 以前이란 뜻이다.

다시말해서 마시고 있던 커피를 그대로 두고 서울서 釜山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보니 그 커피가 아직도 식지않았더라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겠지만 그럴싸하게 느껴질 정도의 時代가 오전생활권의 時代란 것이다.

急變하는 世上

西紀 2000年.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했다. 1985年만해도 世上은 이렇게까지 빨리 변하지는 않았었다.

기차만해도 그렇다. 옛날에는 서울과 釜山간을 달리는 가장 빠른 기차는 「새마을號」였다. 서울에서 釜山간을 4時間 30분에 달린다해서 「초특급」이라고 까지 불렀다.

그런데도 西紀 2000년에 생각하면 그렇게 느린 기차를 타고도 다들 어떻게 참았나하는 생각이든다. 또 4時間 30분을 기차속에서 무료하게 낭비해 버렸다니 말도 안된다.

그러나 西紀 2000년에 와 있는 필자도 그때는 이 기차가 가장 빠른 것으로 느꼈었다.

요새 어린이들에게 1985年代의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믿어지지 않는듯이 의아해한다.

그도 그럴것이 서울에서 釜山간을 단 54분에 그것도 每 10分마다 1회씩 운행하는 西紀 2000年の 어린이들에게 4時間 30分이라니 믿으려 들리가 없다.

最高 時速 6백 60km로 달리는 西紀 2000年の 기차는 強力한 자석의 힘으로 50t이나 되는 객차가 공중 10cm 높이에 뜬 채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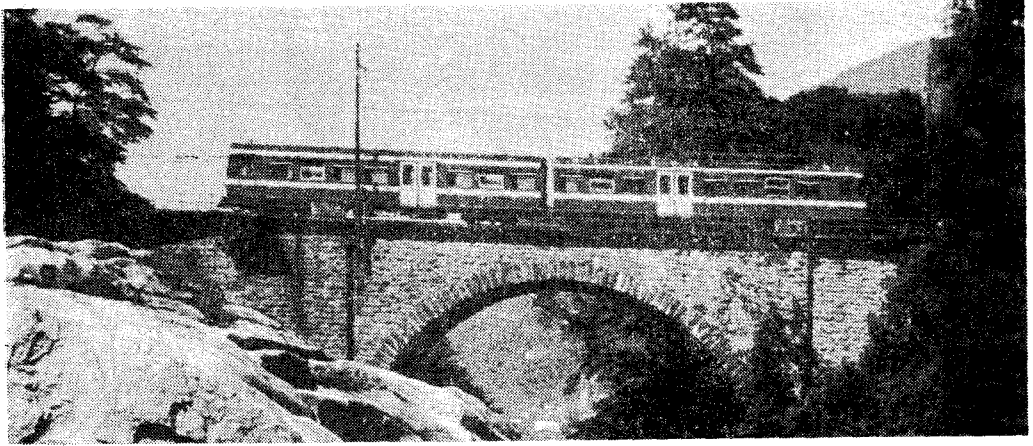
이 기차가 서울에서 釜山을 향해 달리는 순항 속도는 5백 50km. 그러나 大田과 大邱에서 2分씩 정차하는 관례로 이것까지 넣으면 평균 시속은 5백 10km가 된다.

이 기차의 출현은 1905年の 우리나라 첫 기차출현에 버금가는 大事件이었다. 기차를 타면 곧바로 내릴 준비를 해야하니 大事件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서울에서 大田까지 19分, 2分 쉬고 大田에서 大邱까지 18分, 2分 쉬고 大邱에서 釜山까지 13分, 이렇게 해서 서울을 出發한후 54분이면 釜山에 도착한다.

이때문에 서울에서 大田사이라면 화장실에 갈 틈도 없다.

기차에 올라 좌석을 찾아 손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고 담배를 한대 피워물고 車內 자동판매



기의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노라면 스피커에서 大田 도착을 알린다. 단 19분만에 大田에 도착한 것이다.

택시잡기도 機械化

西紀 2000년에는 택시 잡는일까지 機械化된다. 택시 정류장에 가면 우선 의자옆의 단추를 누르고 의자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면 된다.

단추를 눌러 탑승 신호를 보내면 配車센터의 지시에 따라 정류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빈택시가 곧바로 달려오게 되어있다. 더구나 그 택시가 달려오는 모습이 단추 위에 설치된 畫面을 통해 움직이는 빨간점으로 도면에 나타난다.

또한 10차선인 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얼른보면 교통체증에 걸린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도 그럴것이 도로의 각 차선에는 교통량을 제어하는 自動車綜合統制시스템의 電子制御裝置가 완벽하게 개설돼 있어 西紀 2000년에는 교통체증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에컨데 自動車안에 전자공학장치와 자동운반장치가 있어 브라운관에 나타나는 지도위에 出發點과 目的地를 지정만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최단시간에 目的地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자동 유도한다. 말하자면 항공기의 慣性航法裝

置와 비슷한 機能을 갖추고 있어 관제시스템센터에 마련된 대형컴퓨터의 지시에 의해 가장 짧은 時間에 目的地에 닿게된다.

地球村 時代열려

통신의 발달은 地球村 時代를 열어 놓았다.

서울과 뉴욕 사이의 거리 1만 4천 km를 단숨에 좁혀주는 國際 TV電話가 開通된 것이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世界의 어느 누구하고도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 얼굴표정을 읽으면서 즉시 直通自動交換 TV電話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地球全體가 이웃이된 地球村 時代가 활짝 열린 것이다.

마술테이블도 등장

마술테이블이란 調理器의 등장으로 調理方法 및 食事樣式에 엄청난 變革을 가져왔다.

마술테이블이란 단추 하나의 조작으로 상당수의 조리를 하는 프로그램式 調理器인데 西紀 2000년에는 1985年代의 냉장고 만큼이나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加工食品 및 人造食品에 실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自然食을 즐겨 찾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단조로운 食生活때문에 「순수 만들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